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주요 결과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주요 결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추이 분석을 통한 학교교육의 성과 점검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된다. 2019년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6월 13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약 3%, 24,936명(481개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평가와 학교생활 행복도,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 등에 대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전년대비 중·고 모두 영어 성취도는 상승하고 국어, 수학은 비슷한 수준

2019년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과별 성취수준은 전년 대비 4.1%p 감소하였다.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영어는 3.3%로 전년대비 2.0%p, 고등학교 영어는 3.6%로 전년 대비 2.6%p로 감소하였고, 국어와 수학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영어가 72.6%로 전년 대비 6.8%p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국어는 77.5%로 전년

〈표 1〉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구분 연도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중3			고2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17	84.9 (0.50)	67.6 (0.85)	72.6 (0.88)	75.1 (1.13)	75.8 (1.20)	81.5 (1.04)	2.6 (0.17)	7.1 (0.32)	3.2 (0.22)	5.0 (0.47)	9.9 (0.70)	4.1 (0.37)
'18	81.3 (0.58)	62.3 (0.91)	65.8 (0.96)	81.6 (0.94)	70.4 (1.27)	80.4 (1.03)	4.4 (0.26)	11.1 (0.41)	5.3 (0.29)	3.4 (0.35)	10.4 (0.66)	6.2 (0.51)
'19	82.9 (0.54)	61.3 (0.94)	72.6 (0.82)	77.5 (0.90)	65.5 (1.24)	78.8 (0.98)	4.1 (0.28)	11.8 (0.44)	3.3 (0.24)	4.0 (0.40)	9.0 (0.59)	3.6 (0.35)

- ※1. 표집시행에 따라 '17~'19년 결과는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 2. 모집단 분포와 유사하도록 '17년 결과에 대해 '18년, '19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적용함
- 3. 통계적 유의도는 95%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 4. 은 '18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시함

전반적으로 국어, 영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취도가 높음

성별 성취수준은 중·고등학교 모두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여학생이 중·고등학교 모두 국어, 영어에서 남학생에 비해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는 남학생이 중학교 모든 교과와 고등학교 국어, 영어에서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 성별 ‘보통학력 이상’ 성취수준 비율(%)

구분 연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7	79.8 (0.69)	90.5 (0.52)	66.5 (0.98)	68.8 (1.04)	68.1 (1.06)	77.6 (1.04)	67.9 (1.63)	82.9 (0.98)	74.3 (1.69)	77.4 (1.30)	77.2 (1.56)	86.0 (0.93)
'18	75.6 (0.78)	87.4 (0.64)	62.1 (1.04)	62.5 (1.13)	60.4 (1.15)	71.6 (1.08)	75.9 (1.32)	87.5 (0.88)	71.2 (1.59)	69.5 (1.50)	75.4 (1.50)	85.6 (0.92)
'19	76.7 (0.76)	89.6 (0.48)	60.2 (1.07)	62.5 (1.10)	67.4 (1.02)	78.3 (0.88)	71.4 (1.21)	84.0 (0.93)	66.8 (1.56)	64.0 (1.53)	75.5 (1.32)	82.4 (1.05)

- ※1. 표집시행에 따라 '17~'19년 결과는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2. 모집단 분포와 유사하도록 '17년 결과에 대해 '18년, '19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적용함
 3. 통계적 유의도는 95%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4. **■**은 연도 내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를 표시함

〈표 3〉 성별 ‘기초학력 미달’ 성취수준 비율(%)

구분 연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7	4.0 (0.26)	1.0 (0.15)	8.2 (0.45)	6.0 (0.40)	4.4 (0.32)	1.9 (0.21)	7.2 (0.74)	2.7 (0.32)	11.7 (1.05)	7.9 (0.62)	5.6 (0.60)	2.5 (0.29)
'18	6.5 (0.42)	2.2 (0.24)	12.5 (0.56)	9.5 (0.49)	7.2 (0.42)	3.3 (0.29)	5.2 (0.55)	1.6 (0.26)	11.7 (0.89)	9.0 (0.71)	8.9 (0.79)	3.3 (0.39)
'19	6.2 (0.46)	1.9 (0.20)	13.6 (0.56)	9.7 (0.51)	4.7 (0.38)	1.7 (0.21)	5.8 (0.61)	2.0 (0.34)	9.6 (0.80)	8.4 (0.70)	5.0 (0.55)	2.1 (0.31)

- ※1. 표집시행에 따라 '17~'19년 결과는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2. 모집단 분포와 유사하도록 '17년 결과에 대해 '18년, '19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적용함
 3. 통계적 유의도는 95%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4. **■**은 연도 내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를 표시함

대도시 중학교가 읍면지역보다 성취도가 높고, 고등학교는 지역 간 차이 없음

지역규모별 성취수준 차이는 중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교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고,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고, 고등학교는 유의한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는 중학교 수학에서 읍면지역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 대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 지역규모별 ‘보통학력 이상’ 성취수준 비율(%)

구분 연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17	86.2 (0.71)	81.5 (1.23)	71.9 (1.26)	57.8 (1.87)	76.4 (1.26)	64.2 (2.35)	77.2 (1.54)	68.7 (5.18)	78.4 (1.55)	70.4 (5.06)	83.9 (1.31)	75.3 (4.82)
'18	82.4 (0.96)	79.6 (1.75)	66.8 (1.43)	55.7 (2.61)	70.1 (1.58)	60.4 (2.23)	82.6 (1.33)	78.8 (2.65)	73.4 (1.88)	64.4 (3.30)	83.6 (1.40)	74.2 (2.95)
'19	84.9 (0.86)	79.6 (1.43)	64.9 (1.68)	51.8 (2.14)	75.4 (1.40)	65.9 (1.86)	77.7 (1.28)	74.9 (2.64)	68.2 (1.67)	61.1 (4.15)	80.0 (1.39)	75.4 (3.10)

- ※1. 표집시행에 따라 '17~'19년 결과는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2. 모집단 분포와 유사하도록 '17년 결과에 대해 '18년, '19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적용함
 3. 통계적 유의도는 95%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4. ■■■■ 은 연도 내 지역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를 표시함

〈표 5〉 지역규모별 ‘기초학력 미달’ 성취수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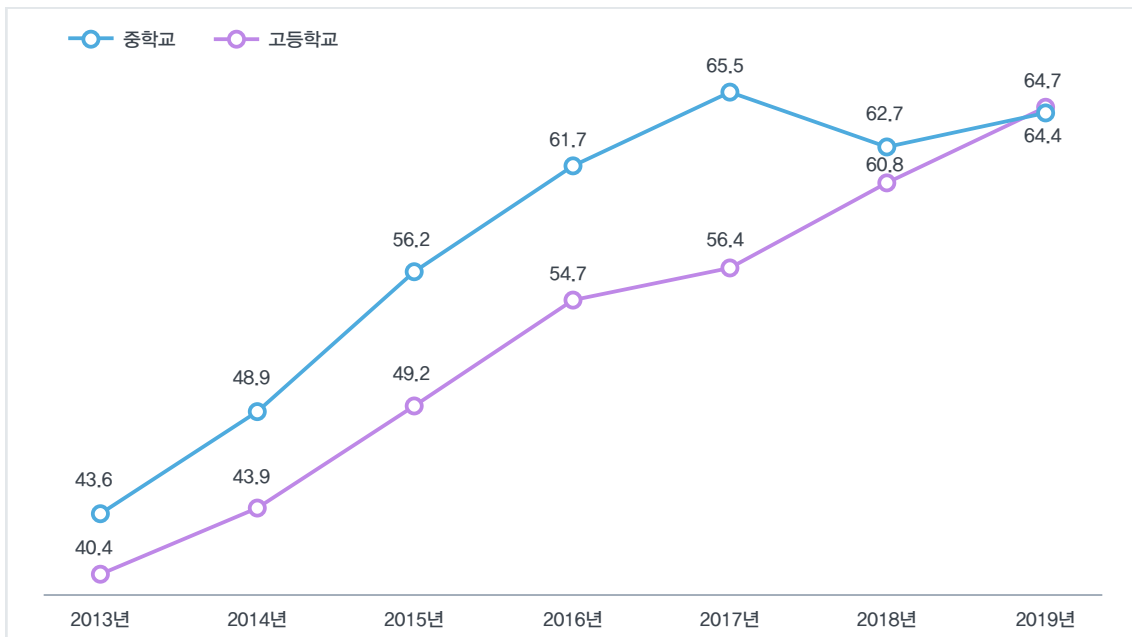
구분 연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17	2.7 (0.28)	3.2 (0.47)	6.5 (0.48)	7.7 (0.75)	2.9 (0.31)	3.8 (0.65)	5.1 (0.71)	7.1 (1.98)	9.0 (0.89)	13.2 (3.14)	3.7 (0.54)	6.3 (1.70)
'18	4.4 (0.39)	4.3 (0.69)	10.3 (0.69)	12.7 (1.28)	5.3 (0.46)	5.2 (0.78)	4.0 (0.63)	3.2 (0.58)	9.4 (0.94)	12.5 (1.77)	5.5 (0.72)	6.8 (1.21)
'19	3.8 (0.43)	4.9 (0.65)	10.3 (0.76)	15.2 (1.18)	3.4 (0.44)	3.6 (0.53)	3.9 (0.58)	3.1 (0.89)	7.6 (0.81)	9.3 (1.69)	3.6 (0.58)	3.0 (0.77)

- ※1. 표집시행에 따라 '17~'19년 결과는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2. 모집단 분포와 유사하도록 '17년 결과에 대해 '18년, '19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적용함
 3. 통계적 유의도는 95%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4. ■■■■ 은 연도 내 지역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를 표시함

학교생활 행복도와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학교생활 행복도(심리 적응도, 교육환경만족도)는 중·고등학교 모두 64%이상으로 2013년과 비교해서 중학교 20.8%p, 고등학교 24.3%p가 증가하였고 특히, 중·고등학생간의 격차가 없어졌다. 심리적응도는 교우관계, 학교생활의 즐거움 등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교육환경만족도는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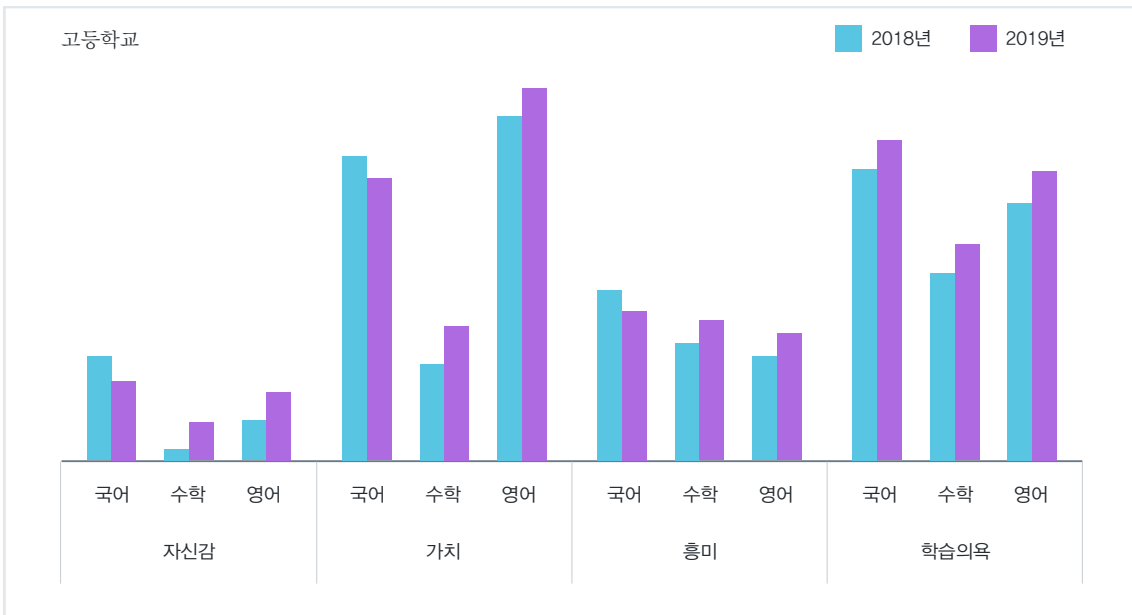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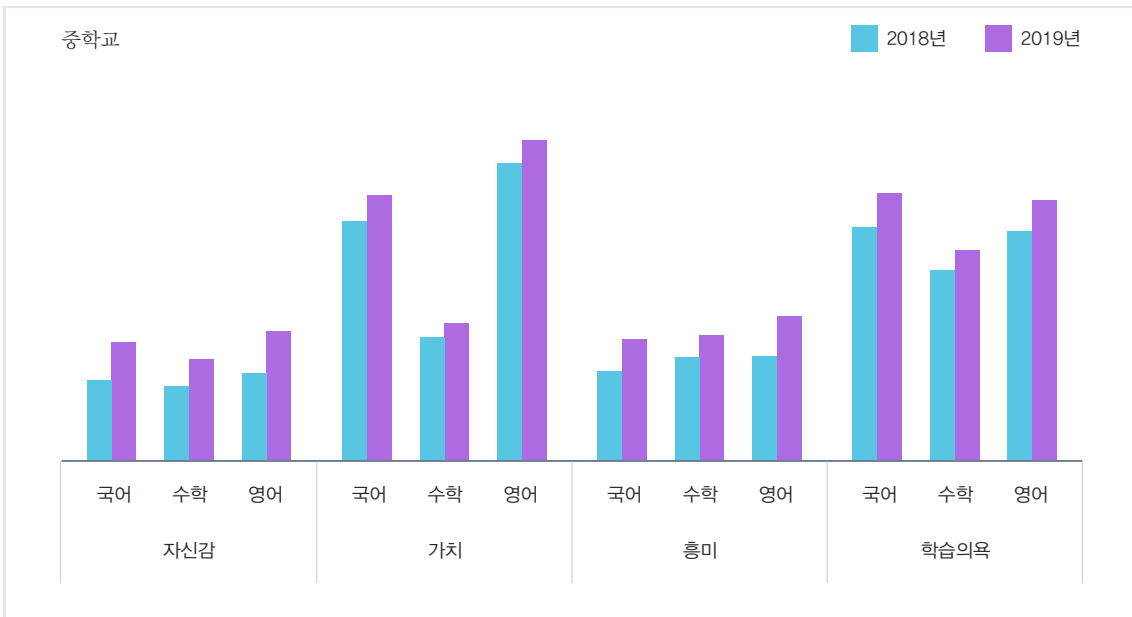
에서의 경험(동아리 활동, 학교 의사결정 참여 등)과 교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가리킨다. '13년에는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행복도의 '높음' 비율이 낮은 편이었으나, 이후 고등학교의 지속적인 증가로 '19년은 중·고등학교 각각 64.4%, 64.7%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림 1] 2013년~2019년 학교생활 행복도 '높음' 비율(%)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도 중·고등학교 모두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높아진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이 높았고, '가치'와 '학습의욕'

이 '자신감', '흥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수학 교과목의 자신감, 가치, 학습의욕 '높음' 비율이 중·고등학교 모두 국어, 영어에 비해 낮았다.



[그림 2] '18년~'19년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높음'추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반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는 두드림학교는 올해 4,018개교로 대폭 늘렸으며, 2022년까지 5,0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중·고등학교 모두 다른 교과에 비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 가치, 학습의욕이 낮고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성공경험을 높이기 위한 활동·탐구 중심의 '생각하는 힘으로 함께 성장하는 수학교육' 실현을 위한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교육기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사업(교육프로그램 특성화 학교(82개교) 및 공동 교육과정(9개 교육지원청)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